



3면

이낙연 전총리, 전주대서 초청 강연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음 7월 15일) 제333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내년 전북도 국가예산 7조9215억원

전년 정부안 반영 규모 대비 3870억원 감소

잼버리 파행 등 돌발 변수로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탄소 등 신산업·농생명 등 미래 뒷받침할 예산은 확보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상규 행정부처장(가운데)이 2024년 정부예산안 전북 반영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억원 정도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3면·7면)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썼을 새만금이 맞을 것이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재정 당국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재정 체질개선을 위해 '24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5.1%) 대비 2.3%p 하향(2.8%) 조정했고, 이에 더해 국정과제 이행과 4대 핵심분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심의단계별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과 도·시군 정치권의 탄탄한 삼각공조, 이에 바탕한 체계적 대응으로 전북 국가예산 확보

에 총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썼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며, 결국 국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에 여파가 미친 것이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돼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돼 정부안에는 5,147억원(78%)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과 함께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새만금법과 조륙법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 여건이 마련돼,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6조 6,0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재정 당국의 균형을 잃은 새

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자 국정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도는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삭감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희망의 근거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이 정쟁과 책임 공방의 무대가 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도는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

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도내 정치권과 시군, 500만 전북인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도는 전북의 미래를 뒷받침할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K-카본 플러그인 기술개발 △고압 탄소 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 구축 △탄소섬유 적용 국방 우주 발사체 개발 및 검증 센터 구축 △대용량·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 위형성 평가 및 안전 기술개발 △시용형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도기기 기술개발 등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K-한지미를 조성 △전주시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완주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화 리 개발사업(2단계) △전주완주 상생을 위한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조성 등 신규사업과 더불어 지속되는 인프라 조성 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직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내달 4일 오후 5시30분 '전북 교사 추모 집회'

도내 교사들 스스로 나서 현재까지 200명 참여 의사 전북교사노조 등 도내 교원단체들도 함께 하기로

9월 4일 전북 교사 추모 집회가 열린다. 9·4 전북교사 추모집회 운영팀은 오는 9월 4일 오후 5시 30분에 전북교육청에서 고 서이초 선생님 49재를 기리는 추모집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특정 노조나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 스스로 나서서 만드는 집회다.

이날 운영팀에 따르면 전북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이하 전라북도 6개 노조 교원단체)도 9·4 전북교사 추모 집회에 함께 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현화하며 고인을 추모한 후 6시부터 집회를 시작한다. 이날 집회에서 전북도내 6개 노조·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운영팀은 "9월 4일은 대한민국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의 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모두가 9월 4일에 무엇이든 하고 싶고, 해야 한다는 마음"이라며 "전북지역의 많은 교사들이 추모집회에 참석해 마음을 나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유산으로 꽃피다

정읍 동학혁명기념공원에서 등재 기념식 혁명정신 세계화·선양사업에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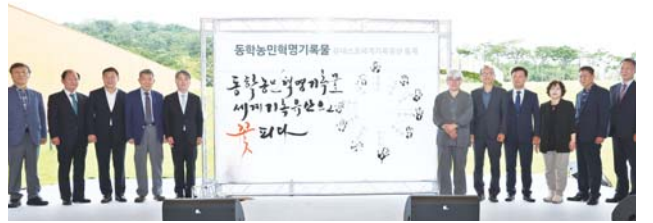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진행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이 29일 열렸다.

이날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동주최로 열린 기념식은 송재영 명칭의 여는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후 문화재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등재 인증서를, 전북도와 정읍시에는 등재 인증패를 전달했다. 사발봉문 퍼포먼스에서는 김지수 서예가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

계기록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으로 꽃피다'라는 문구를 썼다. 이어 기록물 등재에 함께 힘쓴 많

은 분들을 대표해 정읍시, 전북도 문화재청, 기념재단, 등재 추진위원회 전국 유족회 등이 사발봉문 모양에 핸드프린팅을 하며 기록물 등재

에 의미를 다시 새겼다.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인류 역사가 함께 보존 전승해야 하는 유산으로 인정되면서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 세계화와 선양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진행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이 29일 열린 가운데, 이학수 정읍시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

도민 : 2023. 9. 1. (금) - 9. 3. (일) 장애인 : 2023. 9. 15. (금) - 9. 17. (일)

전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2023. 9. 1.(금) 18:00 / 김제시민운동장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2023. 9. 15.(금) 15:00 / 김제실내체육관